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6, pp.119-157  
<https://doi.org/10.29212/mh.2025..136.11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조선에 전해진 독[蠶] · 독제[蠶祭]의 기원에 대한 고찰

허대영 | 한국학중앙연구원 태학사과정

- 목 차**
1. 머리말
  2. ‘독(蠶)’의 기원과 변천
    - 가. 고대 중국의 독, 천자의 상징 ‘황옥좌독’
    - 나. 유목민족의 상징, 툽(tux)
      - 1) 돌궐과 위구르의 낭두독
      - 2) 거란의 12신독과 몽골의 툽
    - 다. 군사 지휘권의 상징으로서 툽과 독
  3. 군아대기(軍牙大旗)에 대한 의례, 마(禡)
  4. 조선의 독제와 마제
  5. 맺음말

**초 록** 독제[蠶祭]는 군권을 상징하는 깃발이자 의물인 독[蠶]을 대상으로 한 제의를 가리킨다. 조선에서는 국초부터 독제를 길례 소사로 분류하고, 봄가을로 정해진 날 혹은 군대를 출정할 때 독제를 지냈다. 게다가 독제는 무관들이 무복을 입고 주관하여, 길레이면서도 군사와 관련된 의례이기도 했다. 그런데 군권을 상징하는 깃발 혹은 의물과 그에

대한 의례는 조선뿐 아니라 동부 유라시아의 여러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였다. 이 논문은 조선에 전해진 독과 독제의 기원에 대해서 동아시아 차원에서 통시적으로 검토하여, 그 의례사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독(蠶)은 본래 황제의 수레를 끄는 말머리에 다는 장식으로 좌독(左蠶)이라 하였으며, 이는 군기 형태의 의물은 아니었다. 한편 유목민족은 그들의 제국을 건설하면서 민족정체성의 상징인 푼(tuḡ)을 만들어 세웠다. 그리고 이를 휘하의 추장들에게 하사하여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국가를 조직화하였다. 수당시기 유목민족 국가 및 제부족과 교류하면서, 중국에도 군기로서 독이 전해질 수 있었다. 특히 당은 유목제국의 방식을 차용하여, 변방의 부족장에게 관직과 함께 기독(旗蠶) 등을 하사하여, 이들을 제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형태와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 독이 중원 국가에도 공유되었다.

중국의 독과 유목민의 푼은 시간이 흐르며 점차 그에 대한 관념이 착종·융합되었다. 그 과정에서 독제의 기원은 고대 황제 혹은 치우에게 소급되었고, 독은 중국과 유목민을 넘어서 보편적인 군사를 상징하게 되었다. 결국 송대에는 독제를 중국 고대의 출정 의례인 禱祭와 관련하여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명대에는 독제를 곧 마제로 인식하였다. 조선에 전해진 독과 독제 그리고 마제는 중원과 유목 사회의 상호 교류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결과라 할 수 있다.

주제어(Keywords) : 독[蠶], 독제, 마제(禱祭), 군사의례, 군아대기(軍牙大旗)

## 1. 머리말

독[蠶]<sup>1)</sup>은 군권을 상징하는 깃발이자 의물(儀物)이며, 독제는 이 독을 대상으로 한 제의를 말한다. 조선에서는 국초부터 독제를 길례 소사로 분류하고, 봄가을로 정해진 날 혹은 군대를 출정할 때 독제를 지내도록 하였다. 게다가 독제는 무관들이 무복을 입고 주관하여, 길레이면서도 군사와 관련된 의례라는 독특한 위상을 가지고 있어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받았다.

독제를 대상으로 한 초기의 연구들은 ‘독제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라는 궁극적인 목표하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조오례의』, 『악학궤범』 등의 문헌 자료를 통해 독제의 의례 절차와 독제에서 사용된 여러 의장물의 규격을 고찰한 연구가 제출되었다.<sup>2)</sup> 그리고 독제에서 연행된 음악 및 무용 등을 검토하는 연구도 이어졌다.<sup>3)</sup>

이후 심승구는 기존의 독제의 절차에 연구 성과를 종합하고, 한국사에서 독제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였다.<sup>4)</sup> 이에 따르면 고려

1) ‘蠶’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독이라 발음한다. 한편 유목 국가에서는 민족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독(tuy)이라고 불리고 기록되었는데, 이를 한자로 기록할 때는 ‘蠶’으로 옮겨졌다. 유목 민족별 독의 정확한 독음에 대해서는 언어학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서술의 편의를 위해서 蠶의 독음을 중국, 유목 국가, 조선으로 구분하여 각각 독, 독, 독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2) 김중수, 「독제(蠶祭) 재현을 위한 문헌 조사」, 『동방학』 12, 동양고전연구소, 2006, 297-330쪽.

3) 송지원, 「조선시대 독제의(蠶祭儀) 악무(樂舞)」, 『문헌과해석』 37, 태학사, 2006, 122-141쪽 ; 김성혜, 「독제(蠶祭)의 음악사적 고찰」, 『음악과현실』 38, 민족음악학회, 2009, 22-47쪽.

4) 심승구, 「조선시대 독제의 변천과 의례」, 『공연문화연구』 제28집, 한국공

말 원의 영향으로 독제가 시행되었으며, 조선에 들어와 국가제사로 정비되어 이후 조선 말까지 독제는 일종의 '무묘제'로서 기능하였다고 하였다.

그 외 경상좌수영에서 설행되었던 지방의 독제와 그 의례적 의미에 대한 분석도 시도되었다.<sup>5)</sup>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독제의 의례 절차와 조선에서 시행 사례 등이 규명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사의 범주 안에서만 독제를 검토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 결과 독제의 기원에 관해서도 고려 말 충렬왕 재위 시기에 독제 및 이와 관련된 제도가 정비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원의 영향으로 독제가 전해졌을 것이라는 사실의 일면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군권을 상징하는 깃발 혹은 의물과 그에 대한 의례는 동부 유라시아 지역의 여러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였다.<sup>6)</sup> 중국과 그 주변 내륙아시아 지역의 여러 민족과 국가에는 독, 독, 툽·툽(tuy) 등의 유사한 독음을 가지는 군권을 상징하는 깃발이 있었으며, 이러한 깃발을 대상으로 한 의례 역시 동아시아 전반에 걸쳐서 유사한 양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조선에 전해진 독과 독제는 일차적으로 원·명 등 당대 중국 왕조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동부 유라시아 지역에 오랜 시기 동안 독과 유사한 의장물이 존재했던 바, 독제의 기원에 대해서도 보다 넓은 시공간적인 범주에서 검토할

연문화학회, 2014, 153-203쪽.

5) 이창언, 「경상좌수영성 의례의 지속과 변화: 독제(蠶祭)를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23, 실천민속학회, 2014, 249-275쪽.

6) 金成修, 「동부 유라시아의 元帥大旗: 툽·툽(tuy) 그리고 독·독(蠶)의 遺傳」, 『역사교육』 144, 역사교육연구회, 2017, 313-343쪽.

김성수는 동부 유라시아 지역에서 유사한 독음을 가지는 蠶과 툽의 기원과 전파과정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독의 중국 기원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북방 유목 사회로부터 기원하여 중원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연구의 방향성과 문제 제기에 있어서 주목할 성과이다.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마제(禡祭)는 고대 중국에서는 출정할 때 정벌하는 땅에서 지내는 의례 중 하나였는데, 송 초에 군기를 대상으로 제사하는 의례로서 정비되었다.<sup>7)</sup> 이때 마제의 대상이 되었던 군기도 야기(牙旗)와 독이었다는 점에서 독제와 유사하며, 명·청에서는 독제와 마제를 같은 의례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반면 조선에서는 독제와 마제를 각각 별도의 의례로 구분하고, 길례 소사로 정리하였다. 독제의 기원을 검토하는 과정은 독제와 마제의 관계에 대해서 규명하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한반도로 유입된 독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 중원 국가와 유목 사회 등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軍을 상징하는 의물이 군기라는 형태로 구체화되고, 이에 대한 제사의례가 중원 및 유목 사회 사이에서 상호 교류하면서 융합되어 역사적 실체를 이루어갔음을 보일 것이다. 이로써 조선에 정립된 독제의 의례사적 의미를 확인하고, 독제가 동부 유라시아 지역의 문화 교류 양상의 한 사례로서 이해되길 기대한다.

## 2. ‘독(蠶)’의 기원과 변천

### 가. 고대 중국의 독, 천자의 상징 ‘황옥좌독’

중국 고대 문헌 자료의 ‘독’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용례로 등장한다. 하나는 여러 의식의 와중에 사람들을 인도하는 ‘독’이고,

7) 허대영, 「조선 전기 개전 및 종전 의례의 구조와 사례」, 『한국문화』 10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3, 67쪽.

다른 하나는 황제의 수레를 끄는 말의 정수리 부위에 얹은 장식인 ‘좌독’<sup>8)</sup>이다.

독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주례』에 장례를 치를 때 상여를 이끄는 도구로서 처음 보인다.<sup>9)</sup> 이 독은 예(翳), 도(翹), 우보당(羽葆幢), 보당(葆幢) 등과 같은 것이라 설명된다.<sup>10)</sup> 이 해설들은 공통되게 독을 깃으로 장식되었거나 만들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형태는 일산과 비슷하다고 묘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수서』 음악지에서는 개악(凱樂) 연주 장면에서 무용수를 인도하는 독이 보인다.

개악(凱樂)을 연주하는 자는 무변을 쓰되 붉은색 구의(褳衣)와 버선을 신는다. 문무를 추는 자는 진현관을 쓰고, 강사연상, 비단 홑옷, 검정 옷깃과 소매의 구의를 입으며, 검은 가죽신[烏皮]을 신고 왼손에는 약(籥)을, 오른손에는 적(翟)을 잡는다. 두 사람이 독(纛)을 잡고 앞으로 이끄는데 이들을 춤추는 사람의 숫자에는 넣지 않지만, 의관은 그들과 똑같이 한다.<sup>11)</sup>

개선악을 연주하며 문무를 출 때, 독을 잡은 2명이 무용수들 앞을 인도하고 있다. 독의 역할은 이후 중국의 국가 의례에도 유사하게 유지되었다. 즉, 고대의 상여를 인도하는 독은 그 역할

8) 좌독은 연구자에 따라 마독(馬纛) 혹은 마모(馬旂)라고 칭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庠政, 「戰國秦漢時期的馬纛及相關問題」, 『考古』 11, 2019, 101-111쪽; 張德良, 荊莉萍, 「馬纛,抑或馬旂?」, 『遼寧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46-1, 2023, 126-132쪽). 사료에서는 대체로 좌독이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좌독으로 통일하였다.

9) 『주례』 「지관사도」 鄉師 “及葬 執纛 以與匠帥御柩而治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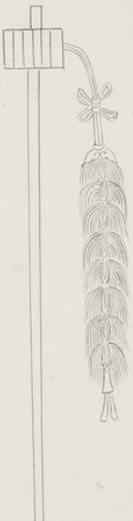
10) 『爾雅』 卷上 釋言 “翹纛也 今之羽葆幢 纛翳也 舞者所以自蔽翳” ; 『周禮註疏』 卷11 “鄭司農云 翹羽葆幢也 爾雅曰 纛翳也 (중략) 纛謂葆幢也”.

11) 『수서』 권14, 지9 音樂中 “凱樂人 武弁硃褳衣履襪 文舞進賢冠 絳紗連裳 帛內單 阜領袖褳 烏皮 左執籥右執翟 二人執纛引前 在舞人數外 衣冠同舞人”.

이 확장되어 의례에서 무용수를 인도하는 의장물이 된 것이다.

하지만 무용수를 인도하는 독은 본고에서 주목하는 군을 상징하는 깃발과는 그 역할과 형태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사실 당대인들도 이를 별개로 구분하고 있었다. 조선의 사례를 살펴보면,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서례』에는 ‘蠶’이라는 이름을 가진 전혀 다른 2종의 의장물이 각각 길례와 군례에 수록되어 있다.<sup>12)</sup> 아래는 『세종실록』과 『국조오례의서례』 두 가지 ‘蠶’ 그림이다.

〈표 1〉 『세종실록』 오례의 및 『국조오례의서례』의 蠶

『세종실록』 길례 蠶	『국조오례의서례』 길례 蠶	『세종실록』 군례 독(蠶)	『국조오례의서례』 군례 독(蠶)
			

12) 조선에서 길례에 사용한 蠶을 “군기인 독을 무용을 위한 소품으로 의물화한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심승구, 앞의 논문, 176-177쪽). 하지만 본문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군례의 독보다 길례의 독이 더 이른 시기에 등장하였다. 그러므로 둘은 별개의 기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길례의 독은 앞서 살펴본 무용수들을 인도하는 독이며, 군례의 독[纛]은 본고에서 주목하는 군기로서 독이다. 즉, 중국 문헌 자료에 등장하는 독의 첫 번째 용례는 군기와는 전혀 다른 의장에 대한 설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 고대 기록 중 독의 두 번째 용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조선 군례에 활용한 의장물인 독에 대한 설명이 주목된다.

『韻會』에 “털이 긴 소[旄牛]의 꼬리로 이를 만들고, 왼쪽 곁마의 머리에 싣는다.”고 한다. 『廣韻』에는 “크기가 말[斗]만 하다”고 한다. 『貳儀實錄』에 “검은 비단으로써 이를 만드는데, 치우의 머리와 비슷하며, 군대가 출발할 때 독에 제사한다”고 한다.<sup>13)</sup>

『운회』와 『광운』에서 독을 설명한 내용은 지금부터 검토할 말머리 장식인 ‘좌독’에 대한 설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좌독은 후한시기 천자의 수레를 상징하는 의장인 ‘황옥좌독’의 한 부분을 말한다.<sup>14)</sup> 대체로 한대에 들어오면서 황제의 수레를 위한 장식성 의장 제도로서 황옥좌독이 정착되었다고 한다.

황옥좌독이란 말은 『사기』 「항우본기」 중 “기신(紀信)이 좌독을 달은 황옥거에 올랐다(紀信乘黃屋車傅左纛).”라고 한 데에 처음 등장한다. 이에 대한 해설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후한말 인물인 채옹(蔡邕)이 “독은 검정소의 꼬리털로 만드는데, 국자[斗]<sup>15)</sup>같다. 곁마 머리에 두거나 혹은 가로대 위에 둔다(纛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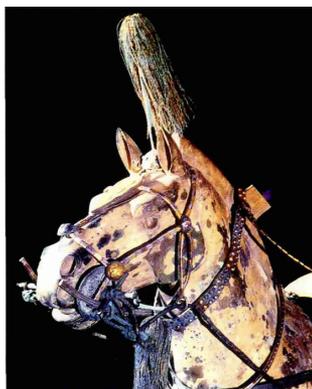
13) 『세종실록』 권133, 오례 군례 서례 兵器.

14) 『후한서』 권39, 지29 輿服上 “故聖人處乎天子之位 服玉藻邃延 日月升龍 山車金根飾 黃屋左纛 所以副其德 章其功也”

15) 좌독의 형태에 대해서 ‘如斗’ 혹은 ‘大如斗’라고 기록하고 있다. 기존에는 ‘如斗’를 ‘말[斗]만 하다’라고 해석하여 좌독의 크기를 설명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본고에서는 긴 뿔과 같은 좌독의 형태를 국자에 비유한 것으로 해석했다.

蠶牛尾為之 如斗 或在駢頭 或在衡上也).”<sup>16)</sup>라고 한 것이다. 앞서 조선의 독에 대한 설명은 좌독에 대한 채옹의 해설을 다시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sup>17)</sup>

그렇다면 채옹이 설명한 ‘좌독’과 조선에서 군례에 사용하는 독과 유사한 형태인 것일까? 문헌 기록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지만, 진시황릉과 전국시대 초나라 묘에서 좌독으로 판단되는 유물이 발굴되어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sup>18)</sup> 아래의 사진은 진시황릉에서 출토된 좌독이다.<sup>19)</sup>



〈그림 1〉 진시황릉에서 출토된 좌독

- 16) 『사기』 권7, 항우본기.  
 17) ‘독은 검정소의 꼬리털로 만든다.’는 좌독에 대한 채옹의 설명은 이후 군기로서 독의 모양을 설명할 때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검은색의 짐승은 일종의 모티프와 같이 군기로서 독을 주요한 요소가 된다.  
 18) 현재 출토된 좌독 중 가장 이른 시기는 전국시대의 것이고, 초나라 묘에서 발굴된 사례가 많다. 그리고 매장자의 신분은 대체로 대부 이상급이었다. 그 외 진시황릉에서 2구, 그리고 전한시기 남월왕묘에서 1구가 발굴되었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전국시대에는 상위 계층들이 수레의 장식으로서 좌독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전한시기 이후로는 천자의 수레에만 좌독을 사용하는 것이 제도화되었다. 황제의 상징으로 제도화된 이후로도 포상의 의미로 무덤에 부장물로는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龐政, 앞의 논문, 101-110쪽.  
 19) 龐政, 앞의 논문, 107쪽, ‘图九 秦始皇陵二号铜车马马蠶’.

이를 보면 황제의 수레를 끄는 말 중 가장 좌측의 말머리 꼭 대기에 얹어서 마치 뿔처럼 만든 장식이 좌독인 것이다. ‘검은 소 꼬리털로 만든 국자[斗] 같’다는 채옹의 설명과도 비슷하다. 좌독은 앞서 군기로서 독과는 다른 의장물임이 분명하다. 좌독에 대한 설명들은 시간이 흐르며, 군기로서 독에 대한 기록에 착종·융합되었을 것이다.

서로 다른 의장물에 대한 기록이 뒤섞여 버린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좌독의 몇 가지 성질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우선 군주를 상징하는 의장물이라는 점, 그리고 좌독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검은 짐승의 털’로 만들어졌다는 묘사이다.

유목 사회의 특은 독과 발음상 유사성이 있고, 군주를 상징하는 의장물이자 검은 짐승의 털을 사용하여 만들었다는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이어서 유목 사회의 특에 대해서 살펴보자.

## 나. 유목민족의 상징, 툽(tuy)

### 1) 돌궐과 위구르의 낭두독

돌궐, 위구르, 몽골 등 이른바 유목민족에게는 각각의 민족마다 카간(可汗)을 상징하는 깃발이 있었다.<sup>20)</sup> 민족에 따라 거의 형태나 그 명칭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툽·툽(tuy)이라 통칭하였고 이를 한문으로 옮겨 기록하면서 ‘纛’이라 표기하였다.<sup>21)</sup> 구체적인 형태나 명칭의 차이와는 무관하게, ‘툽(tuy)’<sup>22)</sup>을 의례를

20) 북방 유목민족의 툽과 이와 관련한 의례 전통에 대해서는 陈晓伟, 「传承与嬗变之间-关于北方游牧民族的“纛”」, 『寻根』 1, 2009a, 33-36쪽 참조.

21) 유목민족의 독은 유목민들이 툽·툽(tuy)이라고 발음했던 것을 ‘纛’이라 기록하였다. 金成修, 앞의 논문, 323-332쪽 참조.

2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사례와 구분하기 위해서 유목민족의 纛은 한문 기록을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툽’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대상으로서 숭배하였던 것은 여러 시기에 걸쳐 여러 민족 사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그렇다면 유목민족에게 있어서 독이 가지는 함의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중국의 독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독은 유목민족의 정체성이자 그들이 세운 유목 제국의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였다.

먼저 6~8세기 스텝 지역을 지배하였던 돌궐과 위구르 유목제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돌궐과 위구르 국가에서는 긴 장대 위에 이리[狼] 머리 형상을 매달은 독을 사용하였다. 이는 당송시기에 편찬된 사서에 ‘狼頭蠶’ 혹은 ‘狼蠶’ 등으로 기록되었다.<sup>23)</sup> 돌궐족의 기원 설화에 따르면 돌궐족은 이리로부터 탄생했다고 전한다.<sup>24)</sup> 그래서 이리를 일종의 시조처럼 숭상하였고, 돌궐족 아사나 집단이 건국할 때 민족의 근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카간의 아문(牙門)에 낭두독(狼頭蠶)을 세웠다.

한편 이리와 관련된 신화 속 이야기는 비단 돌궐족뿐 아니라 여러 유목민족 신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였다. 돌궐 제국의 건국 세력이 이리 신화를 민족과 국가의 기원 설화로 활용한 것은 돌궐족을 중심으로 유목민족의 정체성을 통합하려는 의도를 내포한 것이었다. 즉, 돌궐족의 독은 민족의 상징이자 돌궐 제국의 상징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기록을 바탕으로 복원한 낭두독의 모습이다.<sup>25)</sup>

23) 那木吉拉, 「“雕戈蒙豹尾, 红旆插狼头”-古代突厥语族民族狼头蠶考述」, 『内蒙古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39-5, 2010, 33-35쪽.

24) 투르크 계통 유목민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이리[狼]에 대해서는 정재훈, 『돌궐 유목제국사』, 파주: 사계절, 2016, 75-98쪽 참조.

25) 那木吉拉, 앞의 논문, 33쪽, ‘图一 狼頭蠶’.



〈그림 2〉 복원한 狼頭纛

돌궐 제국이 쇠퇴한 이후 새롭게 유목제국을 형성하였던 위구르 카간의 특 역시 돌궐의 낭두독과 유사하게 이리의 상징을 활용하였다. 『신당서』에는 당 중엽 안사의 난 당시 위구르 카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광자의를 사신으로 파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때 위구르의 갈록(葛勒) 카간은 좌우에 군사들을 도열시키고 사신으로 온 광자의로 하여금 낭독에 절하게 한 뒤 알현을 허락하였다.<sup>26)</sup>

위구르의 특 제도에 대해서는 돌궐보다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다. 9개의 특을 카간의 천막[ordu] 앞에 세워두었다.<sup>27)</sup> 위구르인에게 ‘9’라는 수는 ‘많다’라는 의미로서 국가 전체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9’를 성수(聖數)로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카간의 특을 관리하는 관원을 따로 두기도 하였다.<sup>28)</sup>

26) 『신당서』 권217, 열전142 回鶻 “可汗恃其强 陣兵引子儀拜狼纛而後見”.

27) 정재훈, 『위구르 유목제국사』, 서울: 문학과학사, 2014, 116~117쪽.

28) 정재훈, 위의 책, 127쪽.

## 2) 거란의 12신독과 몽골의 톡

국가와 민족의 상징으로서 톡의 전통은 거란족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란족이 요를 건국하기 이전 부족 연맹의 단계에 있을 때는 당에 입조하고 당으로부터 권력의 상징인 ‘旗鼓’를 하사받음으로써 연맹에 대한 영도권을 당 왕조로부터 승인받았다.<sup>29)</sup> 이후 야율아보기가 요를 건국한 뒤에는 거란족의 독자적인 톡을 세웠고, 이는 거란 황제를 상징하게 되었다. 『요사』에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sup>30)</sup>

요나라는 大賀氏 摩會가 당나라에서 준 ‘북과 독[鼓纛]’<sup>31)</sup>을 받아온 후로 이것을 국장으로삼았다. 그 제도가 매우 간략하였지만 태종이 후당과 후진을 정벌하기 이전에 사용한 물건은 모두 이것이었다. (중략) 요련 말주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도로 12신독과 천자기고를 태조의 깃발 앞에 놓아두었다. 동생들인 날가(刺哥) 등이 반역을 꾀하여 균덕실(勻德實)이 행궁에다 불을 놓자, 황후가 갈고로(曷古魯)에게 명하여 구제하도록 하였는데, 천자기고밖에 견져내지 못하였다. 태종이 즉위한 뒤에 기고와 신독을 어전 앞에다 두었다.<sup>32)</sup>

29) 요 건국 이전 거란과 당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지 지음, 나영남·조복현 옮김, 『정복 왕조의 출현: 요·금의 역사』, 서울: 신서원, 2014, 45-54쪽 참조.

30) 이하 『요사』의 번역은 김위현 외 역, 『국역 요사』, 단국대학교출판부, 2012를 따랐다.

31) 『요사』에는 당에서 ‘鼓纛’을 하사하였다고 서술하였지만, 『契丹國志』, 『자치통감』, 『오대사』 등은 같은 내용을 서술하면서 ‘旗鼓’라고 하였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차이는 당으로부터 받은 의장과 거란인들이 독자적인 의장인 톡을 구분하였던, 당대 거란인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陈晓伟·石艳军, 「《契丹国志》一则史料刍议-兼论契丹之旗鼓」, 『东北史地』 2, 2010, 61쪽 참조.

32) 『요사』 권58, 지27 儀衛志4 國仗 “遼自大賀氏摩會隋唐鼓纛之賜 是爲國仗 其制甚簡 太宗伐唐晉以前 所用皆是物也 (중략) 遙輦末主遣制 迎十二神纛天子旗鼓置太祖帳前 諸弟刺哥等叛 勻德實縱火焚行宮 皇后命曷古魯救之 止得天子旗鼓 太宗即位 置旗鼓神纛于殿前”.

위의 인용문에는 야울아보기가 거란의 수장으로서 자리잡아 가던 10세기 초에는 그의 동생들과 권력 투쟁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sup>33)</sup> 당시 아올아보기의 동생 중 하나인 날가는 독자적인 기고를 세워 야울아보기의 자립을 모방하였고, 야울아보기의 오르두를 불태우고 신독과 기고를 강탈하였다. 이에 야울아보기의 아내가 반격하여 기고는 되찾았고, 이후 새롭게 12신독을 만들어 세웠다. 거란의 특, 즉 12신독은 새로운 황제가 재위에 오를 때 황제의 천막 앞에 이를 세워 거란 정권의 합법적 계승자임을 나타내는 최고 위 국가 의장으로 여겨졌다.<sup>34)</sup>

또한 돌궐이나 위구르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요의 특 역시 국가 정체성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1075년 송의 심괄(沈括)이 사신으로 요 도종 야울흥기에게 조하하였을 때, “동쪽에 털로 덮은 천막이 하나 있고, 주변에 전거(氈車)를 6대를 둔다. 그 앞에 독을 세우고 태묘라 하는데, 모두 초원 한 가운데 있다(東氈廬一 旁駐氈車六 前植蠱 曰太廟 皆草莽之中).”라고 견문을 남겼다.<sup>35)</sup>

이는 계절에 따라 순행하는 유목제국의 특징적인 통치 방식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sup>36)</sup> 요의 황제들은 이른바 사시날발이라고 하여, 황족 및 신료들과 함께 계절별로 이동하며 통치하였다. 그러므로 태묘가 고정적인 위치에 건설된 건축물로 존재하는 것은

33) 거란 초기 아올아보기 형제의 권력 투쟁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지, 앞의 책, 61-62쪽 참조.

34) 陳曉偉, 「信仰·禮儀·權力·羈縻: 契丹社會之蠱·旗與鼓研究」, 『政大民族學報』 28, 2009b, 94-95쪽; 陈晓伟·石艳军, 앞의 논문, 62-63쪽.

35) 陈晓伟, 앞의 논문, 2009a, 34쪽.

36) 요를 비롯한 유목 국가 군주의 계절적 순행과 통치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김호동, 「몽골帝國 君主들의 兩都巡幸과 遊牧的 習俗」, 『中央아시아研究』 7, 중앙아시아학회, 2002 ; 정재훈, 「위구르 카를룩 카간(747~759)의 계절적 이동과 그 성격」, 『中央아시아研究』 11, 중앙아시아학회, 2006 ; 나영남, 「遼代 四時捺鉢의 起源과 影響」, 『인문과학연구』 34,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비효율적이었고, 황제를 따라 함께 이동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상징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신독이었을 것이다. 초원이라는 공간(space)에 신독과 수레를 배치함으로써 그 공간은 의례적 장소(place)로 전환될 수 있었다. 즉, 요의 툃은 의례적으로 태묘를 상징하는 의장이었다.

게다가 거란인이 자신들의 문물제도 기원을 삼황오제로 끌어올려 인식하면서, 툃의 기원도 함께 이에 소급하였다. 『요사』 영위지 서두에는 다음과 같이 툃을 황제·치우로부터 기원한 것으로 서술하였다.

염제 때부터 정령이 쇠퇴하고 치우가 난을 일으키면서 비로소 창과 방패를 만들어 천하에 해를 끼치게 되었다. 현원씨가 일어나 탁록의 언덕에서 죽었다. 거처할 때에는 궁 앞에 상문(象吻)을 설치하고, 행군할 때는 툃에 검은 소꼬리[旒]를 달아, 오래도록 계율로 삼았다. 이에 군사의 영위(營衛)를 설치하게 되었다.<sup>37)</sup>

이는 영위의 제도가 황제로부터 기원하였다는 원론적인 서술이다. 그중 행군할 때 툃에 검은 소꼬리[旒]를 매단다고 한 구절이 주목된다. 검은 짐승의 털로 장식한 툃을 묘사하고 있는데, 툃을 장식한 ‘旒’는 앞서 살펴보았던 ‘좌독’의 형태를 묘사할 때 사용한 용어이기도 하다. 즉, 유목 사회의 툃과 중원 국가의 좌독이 검은 짐승이 털이라는 모티프를 공유하면서, 그에 대한 해설이 융합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리하면 거란의 툃은 태묘와 같은 의례적 지위를 획득하였고, 황제가 만든 제도로 그 기원으로 소급하면서 보편적인 군사·병

37) 『요사』 권31, 지1 營衛志上 “爰自炎帝政衰 蚩尤作亂 始制干戈 以毒天下 軒轅氏作 戮之涿鹿之阿 處則象吻于宮 行則縣旒于纛 以爲天下萬世戒 於是師兵營衛 不得不設矣”.

(兵)의 표상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다음으로 몽골인들의 톱을 살펴보자.<sup>38)</sup> 『몽골비사』 202절에서 칭기즈 칸의 즉위 장면을 묘사하였는데, ‘아홉 다리를 가진 흰 톱(九脚有的白纛)’을 세웠다고 하였다.<sup>39)</sup> 이는 가운데 주가 되는 톱을 두고 그 주변에 이를 보좌하는 톱을 배치한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앞서 위구르 카간의 오르두 앞에 9개의 톱을 두었던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칭기즈 칸의 즉위식에 등장한 몽골인들의 톱은 이후 칭기즈 칸 그 자체를 상징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제의는 몽골인의 전통으로 자리잡았다.<sup>40)</sup> 이러한 몽골인들의 전통은 20세기까지 이어졌는데, 한 예로 오르도스 지역의 몽골인들은 1950년에 기존의 다양한 의례를 통합하기 전까지 700년 전통의 여러 의례를 지속하고 있었다.<sup>41)</sup> 그중 몽골인들이 가장 중시한 의례는 매해 봄철에 칭기즈 칸에 올리는 대제였으며, 다음으로는 13년마다 돌아오는 용의 해에 톱에 올리는 맹위제(猛威祭)가 있었다.<sup>42)</sup> 이때 사용된 톱은 평소에는 사당에 모셔두었는데, 검은색의 톱(=主纛)을 가운데 두고 주위에 그보다 조금 작은 톱(=陪從纛) 4개를 두었다. 이 검은색 톱은 흑갈색 수말의 갈기털로 만든다고 한다. 검은 짐승의 털이라는 모티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8) 몽골 민족과 국가를 상징하는 깃발을 한문 기록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纛’이라 하였지만, 몽골인들은 이를 ‘sülde’라고 칭했다.

39) 유원수 역주, 『몽골비사』, 파주: 사계절, 2004, 196-197쪽.

40) 陈晓伟, 앞의 논문, 2009a, 36쪽.

41) 柳元秀, 「오르도스 地域의 Sülde 猛威祭」, 『비교민속학』 6, 1990, 115-116쪽.

42) 맹위제는 sülde(=纛, 톱(tuy))에 올리는 의례이다. 맹위제에 사용한 톱의 형태와 맹위제의 구체적 절차에 대해서는 柳元秀, 위의 논문, 117-133쪽 참조.

## 다. 군사 지휘권의 상징으로서 통과 독

이처럼 돌궐, 위구르, 거란, 몽골 등 유목민족들은 각각 민족정체성을 표상하는 군기인 독을 만들어 사용하였다.<sup>43)</sup> 하지만 중국의 좌독이 황제의 상징으로서 황제의 수레에만 사용된 것과는 달리 유목민족의 독은 카간만이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는 중국 왕조의 국가와는 다른 유목 국가의 특성과도 관련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유목 사회에서 특정한 추장이 대내외에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여 많은 수의 부족을 거느리거나 혹은 주변의 강대한 제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했다.<sup>44)</sup> 유목 민족들이 제국을 건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국의 통치자인 대카간 이외의 여러 층차의 카간이 등장한다. 이러한 다양한 층차의 카간은 대카간으로부터 카간의 칭호와 함께 독을 받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이는 대카간에 속한 세력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자, 독자적인 군사지휘권을 의미하였을 것이다.

이때 추장 권위의 배경이 되는 ‘강대한 제국’은 유목제국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으며, 중국 왕조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도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당은 기미정책의 일환으로 몽골 초원 지역에 기미부를 설치하고, 귀순해온 추장들에게 도독 관직을 주어

43) 만주족의 淸에도 통과 유사한 의장과 그에 대한 의례가 존재하였다. 본고에서는 조선으로 전해진 독의 제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청의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를 통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청의 독에 대해서는 金成修, 앞의 논문, 329-332쪽 ; 陈晓伟, 앞의 논문, 2009a, 36쪽 참조.

44) 유목제국의 구조적 특징과 토지보다는 인구를 중심으로 한 통치·지배 체계 그리고 정주하지 않고 일정 지역을 순환하는 생활 방식 등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유목제국의 구조와 특성에 대해서는 정재훈, 앞의 책, 2014, 39-88쪽 ; 정재훈, 앞의 책, 2016, 170-191쪽 참조.

변경을 관리하였다.<sup>45)</sup> 『통전』에는 도독에 대해, ‘변방의 오랑캐[寇戎]의 땅에 도독을 임명하여 군사들의 생사여탈권을 주고 행군할 때는 정절(旌節)을 세우고 부에는 육독(六纛)을 세우게 하였다’<sup>46)</sup> 라고 설명하였다. 도독 관직과 함께 수여된 독은 유목 국가의 카간으로 받은 특과 같은 상징적 의미였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거란인들이 건국하기 전 부족 연맹의 단계였을 때, 당으로부터 관직을 받고 ‘기고’를 하사받는 것 또한 유사한 맥락이었을 것이다.

특히 유목제국의 영향력이 약해진 시기에는, 국경 지역의 유목 민족 추장들이 중국 왕조에 예속되어 스스로의 세력을 성장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돌궐 제국 말기 본래 돌궐에 속하였던 추장들이 돌궐의 휘하에서 벗어나 당에 예속되기 시작하였다.<sup>47)</sup> 돌궐을 이어 유목제국을 건설하였던 위구르 역시 그러한 세력 중 하나였다. 7세기 중반 당시 돌궐을 대치하여 유목 세계의 강자로 떠올랐던 설연타가 붕괴하면서 위구르가 본격적으로 유목 세계 내에서 세력을 인정받고 국가의 체계로 발전하였는데, 당시 추장이었던 킬릭 엘테베르 토미도는 당으로부터 한해도독으로 책봉되었을 뿐만 아니라 카간을 자칭했다.<sup>48)</sup> 이후 위구르 부족 내부 각각의 씨족장에게는 투툽(tutuq: 都督)의 지위를 주어 중국의 정책을 모방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 왕조의 군웅들이 유목민족 대카간에게 복속하고 특을 받는 일도 가능했다. 수말 화북 지역 혼란이 심화되면서 군웅들이 할거하였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돌궐에 칭신하고 지원을 받았다.<sup>49)</sup> 615년 왕을 자칭하였던 상곡(上谷) 출신 왕수발

45) 당의 기미정책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정재훈, 위의 책, 2016, 379-397쪽 참조.

46) 『통전』 권32, 직관14 도독 “其邊方有寇戎之地 則加以旌節 謂之節度使 自景雲二年四月 始以賀拔延嗣 為涼州都督 充河西節度使 其後諸道因同此號 得以軍事專殺 行則建節 府樹六纛 外任之重莫比焉”.

47) 정재훈, 앞의 책, 2014, 50-51쪽.

48) 정재훈, 위의 책, 93쪽.

(王須拔)은 돌궐과 연계하여 산서지역을 공격하였다가 패배한 후 돌궐에 투항하여 남면(南面) 카간으로 책봉되었다. 617년 삭방군관 양사도(梁師都)는 대승상을 칭하고 돌궐에 항복하였는데, 당시 돌궐의 세비 카간은 양사도에게 낭두독과 함께 카간의 칭호를 내려 주었다. 같은 시기 마음고위였던 유무주(劉武周)는 돌궐의 지원을 받아 정양을 함락시켰고, 돌궐에서는 그를 정양 카간으로 봉하고 낭두독을 내려주었다.<sup>50)</sup>

즉, 본래 유목 제국의 상징이었던 독은 수당 시기 돌궐 및 위구르 등 유목 제국과의 관계에서 기미정책의 도구로서 활용되면서, 군사지휘권의 상징이라는 속성만 부각된 것 같다. 이와 함께 중원 국가에서는 독을 ‘蠶’이라 표기하기 시작하였고, 점차 이를 중원에서 기원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군기로서 독은 당대 이후 기록에서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당육전』에는 ‘후한 때 독두(蠶頭)라는 것이 있어 천자가 행행하거나 대군으로 정벌을 떠날 때 기 위에 독을 달았다.’라고 하였다.<sup>51)</sup> 송대에 들어서는 독의 기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보인다. 송대 편찬된 유서인 『사물기원』에는 독을 ‘皂蠶’과 ‘六蠶’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sup>52)</sup>

이중 조독은 『당육전』에 기록된 독의 설명에는 후한 때 기원한 것이라 하였는데, 『사물기원』에는 후위에서 기원한 것이라 설명하였다. 한편 육독의 경우 이전에 보이지 않던 기원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르면 상(商)에 독 제도가 있었는데 치우의 머리와 비슷하게

49) 수말당초 화북지역 군용할거와 돌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재훈, 앞의 책, 2016, 293-309쪽 참조.

50) 那木吉拉, 앞의 논문, 34쪽.

51) 『당육전』 권16 “二曰蠶 後漢有蠶頭 每天子行幸 及大軍征伐 則建于旗上”.

52) 『사물기원』 권3, “皂蠶 六典曰後魏有蠶頭 宋朝會要曰 皂蠶本後魏蠶頭之制 唐衛尉蠶居其一 蓋旄頭之遺像 (중략) 六蠶 實錄曰 商有蠶皂絲為之 似蚩尤首 黃帝內傳曰 玄女為帝制 玄蠶十二以主兵 是則蠶 自黃帝始”.

생겼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12개의 독으로 군대를 주관하였는데 이는 황제로부터 기원하였다고 하였다. 12개의 독은 『요사』에 기록된 거란의 12신독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게다가 거란에서도 독의 기원을 황제에 소급하였던 것도 주목된다.

정리하자면 수당시기를 거치면 중국으로 유목 국가의 특 제도가 유입되어 ‘蠶’으로 기록되었다. 이후 독과 독에 속성과 형태 등에 대한 기록은, 착종과 융합을 거치며 혼합되었다. 그 결과 송과 요를 거치며 황제와 치우를 기원으로 하는 군기로서 독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 3. 군아대기(軍牙大旗)에 대한 의례, 마(禡)

마(禡) 혹은 마제(禡祭)는 본래 천자가 출정하여 정벌하는 땅에서 이르러서 지내는 제사였다.<sup>53)</sup> 천자의 군대가 외지의 신령으로부터 화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sup>54)</sup> 점차 시간이 지나며 마제의 대상이 되는 신격도 구체화되고, 의례의 성격도 확장되었던 것 같다.

마제에 대한 한대의 해설에서는 마제의 대상이 되는 신격을 군사상징으로서 치우 혹은 황제로 인식하였다.<sup>55)</sup> 정현은 마제를 ‘군법(軍法)을 만든 자’에게 지내는 제사이며, 그 대상은 치우나 황제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가공언(賈公彦)은 치우와 황제는 ‘병(兵)

53) 『예기』 왕제 “天子將出征 類乎上帝 宜乎社 造乎禡 禡于所征之地”

54) 고대 마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안지연, 「중국 고대의 군례(軍禮)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70-72쪽 참조.

55) 마제의 대상에 관한 고대 중국의 기록에 대해서는 王政, 「柳宗元《祭蠶文》《禡牙文》与古之禡祭」, 『淮北煤师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23-5, 2002, 52쪽 ; 안지연, 위의 논문, 70-72쪽 참조.

을 만든 자(造兵之首)’라고 덧붙였다. 이는 보편적인 군사를 상징하는 신격으로서 치우와 황제를 형상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56)</sup>

이후로도 마제의 대상을 황제나 치우 둘 중 하나로 확정하지 못한 채로 시행되었지만, 『통전』의 기록을 따르면 당대에 이르면 마제의 대상은 점차 황제로 고정되는 경향을 보인다.<sup>57)</sup> 이와 관련하여 청대 역대 의례 제도를 정리하여 『오례통고』를 편찬한 진혜전(秦蕙田)은 ‘황제는 성인이고 치우는 역신이므로 황제에게 제를 올리는 것이 옳다’고 말하며, ‘마제는 본래 황제에 대한 제사였는데 후대에 치우를 신격으로 보는 인식이 편입된 것’으로 판단하였다.<sup>58)</sup>

한편 당대에 이르면 마제는 황제·치우를 신격으로 하되, 제사의 대상으로 균기인 아기(牙旗)·독 등을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송대에는 마제를 아기·육독에 대한 의례로 제도화하고 의례 절차를 규정하였다.<sup>59)</sup>

송대 정립된 마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송사』 예지에는 “군대의 앞에 아(牙)라 부르는 대기를 두고 출정하기 전에 반드시 제를 올렸는데, 이를 마(禡)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sup>60)</sup> 1001년에는 태상예원에서 황제, 아신(牙神, =軍牙)과 독신(蠶神, =六蠶)의 신위를 만들어 제사하는 것으로 마제의례를 제정하였다.<sup>61)</sup> 또 황제가 전렵할

56) 정현이 말한 ‘軍法’을 법령 조항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가공언이 말한 ‘兵’을 병기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하지만 보다 보편적인 군사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한대에 들어서면 보편적인 군사를 상징하는 신격으로서 황제 혹은 치우의 이미지가 형성된 것이다.

57) 王政, 앞의 논문, 52-53쪽.

58) 『오례통고』 권237, 군례5 “本謂黃帝聖人 蚩尤敢與拒戰逆臣也 何得與于祭 其理甚正核而論之 當以祭黃帝為是”.

59) 郭紅, 「明代的旗蠶之祭: 中国古代军事性祭祀的高峰」, 『民俗研究』 5(2013) 總第111, 2013, 90-91쪽.

60) 『송사』 권122, 지74 군례 “軍前大旗曰牙 師出必祭 謂之禡”.

61) 『송사』 권122, 지74 군례 “咸平中 詔太常禮院定禡儀 (중략) 置軍牙六蠶位版” ; 『무경총요』 권5, 軍祭 “本朝咸平四年 詔禮官詳定 禡於所征之地

때 사냥터[田所]에 관리를 파견하여 황제의 신위를 놓고 마제를 지내게 하였다.<sup>62)</sup> 즉, 송대 제도화된 마제는 황제를 가장 최고위에 두고, 독·아를 함께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출정이 아닌 전렵할 때도 시행하도록 확대되었다.

사실 송대 이전부터 독·아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군사 의례가 행해지고 있었음을 관련한 제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기에 대한 제문은 후한 이후부터 등장하고 있는데, 당대에 이르면 아기에 대한 제문은 ‘禡牙文’으로 독에 대한 제문은 ‘祭蠹文’으로 구분하기 시작하였다.<sup>63)</sup> 특히 당 유종원(柳宗元)은 독과 아에 대한 제문을 작성하였는데, 각각 제독문과 마아문이라 하였다. 그리고 여러 제문 중 동진 고개지(顧愷之)의 제아문(祭牙文)에는 황제·치우·오병의 신령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당시 황제·치우·아 등을 하나의 의례에서 다루어지고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대를 거치면서 별도의 의례였던 마제, 아와 독 대한 의례들이 점차 하나의 의례로 통합되고 있던 상황을 보여준다.

이는 당송시기 병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태백음경』과 『호검경』<sup>64)</sup>에는 군사와 관련된 제사에 사용하였던 제문이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태백음경』에는 ‘祭牙旗’, ‘禡馬神’, ‘祭蚩尤’, ‘祭名山’, ‘祭大川’, ‘祭風伯’, ‘祭雨師’, ‘祭沙門毘天王’이다.<sup>65)</sup> 이때 마제는 말의 신[馬神]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호검경』의 경우 ‘毘沙門天’, ‘風伯雨師’, ‘山川’, ‘黃帝’, ‘蚩尤’, ‘八神’,

禮 付北面總管 其祭 除地為壇 以祠黃帝軒轅氏 用羊豕代太牢 都總管為初獻 餘用舊儀 其牙神蠹神 以一少牢其幣 牙以白蠹以阜 用剛日”.

62) 『정화오례신의』 권160, 군례 皇帝田獵儀上 “皇帝將獵 (중략) 有司禡祭於田所 設黃帝神位南向”.

63) 『태평어람』 권339, 병부5 牙.

64) 『호검경』의 내용과 번역은 허순영, 『『虎鈴經』 試論 및 校釋 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을 주로 참조하였다.

65) 『태백음경』 권7, 제문류.

‘當境神’ 등에는 ‘祭’, ‘牙旗’, ‘門旗’, ‘五方旗’, ‘六纛旗’, ‘五兵’, ‘馬’ 등에는 ‘禱’를 지낸다고 하였다.<sup>66)</sup> 송 초에는 군사에 관련된 제사들이 추상적인 신격에는祭를 군기나 병기 등 실체가 있는 대상에게는 禱를 지내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무경총요』 軍祭 항목 아래에 마제의 절차 하나만을 설명하면서, 옛 법식에 따라 풍사, 우사, 마조(馬祖) 등에 제사를 겸하여 지낸다고 설명하였다.<sup>67)</sup> 결국 마제로 모든 군 관련 제사들이 통합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sup>68)</sup>

그 결과 마제는 군사 전반에 대한 의례가 되었다. 마제는 보편적인 군사를 상징하는 신격인 황제를 대상으로 하되, 이는 현실에서 독과 아기란 의장물을 매개로 형상화하였다. 마제는 이를 통해 군사적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로서 전시와 평시를 포괄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명대 마제가 곧 독에 대한 제사(旗蠶祭)로서 두 의례가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고 기록되었던 것 역시 송대 마제의 성격 변화로 인해 가능했을 것이다. 명대 마제는 국초 주원장 시기부터 나타난다.<sup>69)</sup> 주원장은 정벌 과정에서 항상 마제를 거행하였으나, 이 당시에는 일정한 절차가 규정되진 않았다. 다만 마제는 군아대기를 주신으로 하였으며, 황제 등의 신격을 전면내세우진 않았다. 이후 명대의 마제는 군사의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의

66) 『호검경』 권20.

67) 『무경총요』 권5, 군제 “舊法兼祭風師 祭雨師 祭馬祖 其薦獻亦用牲牢酒脯香幣如上儀”.

68) 이와 관련하여 깃발과 북 등 軍器에 대한 제사, 길에 대한 道祭, 경과하는 산천에 대한 山川祭, 정벌하는 지역에 대한 마제 등의 군례를, 재앙을 물리치는 祓除와 관련된 의례로 함께 분류한 의견이 주목된다(안지연, 앞의 논문, 49-74쪽). 송대 여러 군사 관련 의례들이 마제의 범주로 묶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공통적인 속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69) 명대 마제의 제도에 대해서는 郭紅, 앞의 논문, 91-95쪽 참조.

례로 여겨졌다. 홍무 연간에 남경과 북경에 기독묘(旗纛廟)를 설치하고, 마제의례를 정립하여 일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거행하였다. 지방에도 각지 위소와 주현에 기독묘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마제를 시행하였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정례화된 마제의 시행이 제도화되었고, 그 외에도 군대가 출정할 때 산천제와 함께 마제를 거행하게 했다.

명대에 마제와 독제를 동일한 의례로 인식한 이래로, 후대에도 이러한 인식은 유지되어 기고 등에 대한 제사를 모두 마제이자 독제로 이해하였다. 청대 편찬된 『오례통고』에는 군례 중 기독제(旗纛祭)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당송 이후 마제에 관한 기록을 함께 서술하였다.<sup>70)</sup> 또한 『요사』와 『원사』에서 ‘祭旗鼓’라고 서술한 기록도 함께 수록하였다.

그리고 1919년에 편찬된 『신원사』에는 ‘禡牙祭旗鼓’ 항목 아래 기에 대한 제사 시행 사례를 수록하였다.<sup>71)</sup> 원의 기고에 대한 제사 전통은 요금 등 유목 사회의 전통임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이를 ‘마아제기고’ 아래 배치한 것은 유목 사회의 군기에 대한 의례를 근본적으로 마제와 같은 의례로 이해한 것이다.

#### 4. 조선의 독제와 마제

한국사에서 독제가 제도화되고 정착된 것은 조선에 이르러서이지만, 독에 대한 기록은 후삼국 시기 왕건이 견훤에게 보낸 서신에서 처

70) 『오례통고』 권237, 군례5.

71) 『신원사』 권90, 지57, 예10 마아제기고 “蒙古軍禮之僅見者 憲宗二年七月 命皇弟忽必烈徵大理 諸王禡牙西行 七年六月 謁太祖行宮 祭旗鼓 八年十一月 令皇弟忽必烈禡牙於開平西北 其禡牙之禮與扶旗鼓之禮 均未聞 遼景宗將伐宋 命巫者祠兵神及祭旗鼓 益遼金舊嗣 蒙古襲而用之”.

음 등장하였다. 왕건은 고려가 우세한 전황을 나열한 내용의 서신을 보내 견훤을 압박하였는데, 그중 “마리성 인근에서 수오(隨晤)를 독 아래에서 죽였다”라고 하였다.<sup>72)</sup> 정황상 이때의 독은 장수의 생사여탈권을 상징하는 의물로 여겨진 것 같다. 이에 왕건은 독 아래에서 적장을 참수하는 의식을 행한 것이다. 다만 이때의 독의 구체적인 형태나 이를 대상으로 한 의례 제도의 확립 여부는 알 수 없다.<sup>73)</sup>

기록상 독제의 첫 시행은 13세기 말 여몽연합군이 일본정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sup>74)</sup> 1281년(충렬왕 7) 3월에 궁궐 남문에서 독제를 지냈다.<sup>75)</sup> 그 이후로도 나연[乃顔] 반란 진압 등을 위한 출정에 앞서 궁문에서 독제를 지냈다.<sup>76)</sup>

충선왕은 태청관에 종9품 판관을 두어 독을 관리하게 하고 출정할 때 태청관에서 마제<sup>77)</sup>를 지냈다.<sup>78)</sup> 이후에 공민왕은 대독[大蠶]을 새로 제작하고 매월 삭망에 제사하도록 하였다.<sup>79)</sup> 기존 연구에서는 독의 관리와 독제가 제도화되었다는 점에만 주목하였는

72)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 ; 『삼국유사』 권2, 기이2.

73) 독의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최소한 12세기에 이르면 군을 상징하는 의물인 ‘蠶’이라 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록을 따라 후삼국시기 이전에 독이 전래되었다고 한다면, 한반도에 독의 유입과 관련하여 삼국통일전쟁 이후 당에서 도독부를 설치하면서 관례에 따라 육독을 설치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후삼국 시기 독이 유목민족 계통의 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74) 고려시대 독제의 시행 사례와 제도에 대해서는 심승구, 앞의 논문, 158-161쪽 참조.

75) 『고려사』 권63, 지17, 예5, 길례소사 잡사.

76)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 13년 6월 ; 충렬왕 16년 9월.

77) 선행 연구는 『고려사』에 기록된 마제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고, 특별한 근거 없이 독제로 번역하기도 했다.

78) 『고려사』 권77, 지31, 백관2, 大清觀.

79) 『고려사』 권41, 세가41 공민왕 18년 11월 ; 권63, 지17, 예5, 길례소사 잡사.

데, 관련 사료를 살펴보면 독제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출정할 때 지내는 마제와 정기적으로 독에 행하는 제례를 구분하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1369년(공민왕 18) 동녕부 토벌 당시 이인임을 도통사로 임명하여 출정시키는 상황을 설명한 『고려사』 기록을 보자.

수문하시중 이인임을 서북면도통사로 삼고, 대독을 하사하여 보내었다. 왕이 일찍이 서경에 행차하였을 때, 대독을 제작하여 관리를 두어 지키게 하고 때에 맞추어 제사하게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이인임에게 주어 출진하게 하였다. 태청관에서 마제를 지낸 다음 오군에게 명령을 내려 황교까지 호송하였다.<sup>80)</sup>

즉, 충선왕대에 태청관에 독을 두어 관리하고, 군을 출정할 때 이곳에서 마제를 지내게 하였다. 공민왕은 이에 더하여 독제의 시행을 정례화하였다. 한편 고려말 이첨은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 출정할 때 지내는 독제와 마제를 위해서 제독문과 제마아문을 각각 작성하였다.<sup>81)</sup> 이는 독제와 마제가 별개의 의례로서 구분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1377년(우왕 3)에 독을 관리하는 독치를 혁파하면서 매일 삭망에 시행하던 독제도 상당 부분 축소하였던 것 같다.<sup>82)</sup>

조선 건국 이후 독제의 제도는 새로이 정비되었다.<sup>83)</sup> 국초에는 정월 제사로서 정비하고자 했던 것 같다. 건국 이후 첫 새해 정월인 1393년(태조 2) 1월과 이듬해인 1394년 1월에 독제를 시행하였

80) 『고려사』 권41, 세가41 공민왕 18년 11월 “以守門下侍中李仁任爲西北面都統使 賜大纛以遣 王嘗巡御西京 製大纛 置官守衛 以時致祭 至是 授仁任出鎮 禡于大清觀 及行令五軍 衛送于黃橋”.

81) 이첨, 『쌍매당협장집』 권24, 문류.

82) 『고려사』 권63, 지17, 예5, 길례소사 잡사 ; 권77, 지31, 백관2, 大清觀.

83) 조선 초 독제 제도 정비 과정에 대해서는 심승구, 앞의 논문, 161-176쪽 참조.

음이 확인된다.<sup>84)</sup> 또 2차 왕자의 난이 있었던 1400년(정종 2) 1월 장차 독제를 위해 사냥하려 하였다는 기록도 정월의 정기적인 독제 시행을 시사한다.<sup>85)</sup> 하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태종대에 이르러 봄·가을에 독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변화하여 정착되었다. 1421년(세종 3) 예조에서 독제를 길례 소사의 예에 따라 의절을 정비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때 이미 봄·가을의 독제라고 서술하였다.<sup>86)</sup> 1440년(세종 22) 독제 의주 정비되었고, 1474년(성종 5) 『국조오례의』에 길례 소사로 확립되어 매년 경칩과 상강에 제사하는 것으로 정해졌다.<sup>87)</sup>

한편 마제의 경우 조선 초 사냥훈련의례인 강무와 함께 정비되었다. 조선초기 강무를 출발하기 전에 마제를 지내는 것이 상례로 정착되어 있었다. 1422년(세종 4) 상황이었던 태종은 마제는 황제에게 지내는 제사인데 사복직장이 현관이 되는 것은 격이 맞지 않다고 말하며, 의례 절차를 다시 상고하라고 하였다.<sup>88)</sup> 1424년(세종 6)에 ‘출정할 때의 마제는 黃帝와 치우에게 제사하고, 사냥할 때 마제는 다만 치우에게만 제사한다’는 『통전』의 내용에 근거하여 강무할 때 마제는 치우에게만 제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해 9월 마제의주가 정해졌는데, 마제는 춘추로 강무하기 하루 전에 시행하며 그 대상은 치우로 정하였다.<sup>89)</sup>

이러한 마제에 대한 조선의 인식은 이후로도 이어졌고, 『국조오례의』에도 그대로 명문화되었다.<sup>90)</sup> 그 결과 조선에서 마제는 군사

84) 『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1월 16일 입술 ; 권5, 태조 3년 1월 27일 정묘.

85) 『정종실록』 권3, 정종 2년 1월 28일 갑오.

86)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19일 기묘.

87) 『세종실록』 권89, 세종 22년 6월 13일 계미 ; 『국조오례의』 권2, 길례 蠶祭儀.

88) 『세종실록』 권15, 세종 4년 3월 6일 계해.

89) 『세종실록』 권25, 세종 6년 9월 22일 갑오.

90) 『국조오례의』 권2, 길례 향선목의 ; 『국조오례서례』 권1, 길례 잡사.

훈련의례인 강무를 시행할 때만 행해지는 특수한 의례가 되었다. 강무 자체가 조선 초에 활발하게 행해지고, 후기에는 거의 행해지지 않으면서 마제도 조선 후기에는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기 명에서는 마제와 독제를 아기와 독에 대한 제례로서 동일시하고, 결국 마제로 관련 의례가 통합되었다면, 조선에서는 마제는 강무 때 행해지는 특수한 의례가 되었고 독제가 군사 관련된 대표적 제례로 정착하였다. 조선의 독제와 명의 마제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의례를 다른 이름으로 칭한 것이지만, 의례로서 기능은 거의 동일하다.

우선 중앙과 지방에서 매년 경칩과 상강에 정기적으로 시행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조오례의』를 편찬하며, 독제의 규정이 명문화된 이후 독제의 시행은 조선 후기까지 지속되었다.<sup>91)</sup> 지방의 경우 병영과 수영을 중심으로 독제가 시행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난중일기』를 통해 확인되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이 전라좌수영·통제영 등에서 독제를 지낸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로도 1606년(선조 39) 당시 통제사였던 이운룡이 독제를 거행하였다.<sup>92)</sup> 그 외에도 『여지도서』와 같은 지리지에서 각지의 단묘 중독사, 독소, 독제소, 독제단 등의 장소를 기록하고 있으며,<sup>93)</sup> 송시열과 임방의 문집에 각각 수록된 ‘공주웅진독제문’과 ‘충주독제문’을 통해서도 조선 후기 동안 각지에서 독제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sup>94)</sup> 또한 1793년(정조 17) 정조는 병마절도사가 직접 독제

91) 조선 후기 독제 시행 추이에 대해서는 심승구, 앞의 논문, 182-188쪽 참조.

92) 통제영에서 독제 시행 사례에 대해서는 석효정, 「전통 만들기에서 시대성과 지역성 찾기: 통제영 독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18-19쪽 참조.

93) 『여지도서』 상, 강원도 김화 단묘 ; 평안도 영변 단묘 ; 하, 함경도(관북읍지) 함경남도함흥부 단묘.

94) 『송자대전』 권151, 축문 공주웅진독제문 ; 『수훈집』 권10 축문 충주독제문.

를 주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였는데, 이는 지방에서의 독제 시행을 중앙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음을 보여준다.<sup>95)</sup>

한편 지방의 독제는 토속적인 의례나 다른 의례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제주의 경우 매년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무당이 독을 받들고 나희(儺戲)를 하는데, 징과 북을 울리며 독을 이끌어 마을로 들어가며 사람들이 재물을 내놓으며 굿을 하였다.<sup>96)</sup> 경상좌수영의 독제 또한 수영산신당제, 무민사의 최영장군 제사 등 민간신앙 요소들이 첨가되다가 좌수영이 폐지되고 주재집단이 와해하면서 민간신앙으로 바뀌어 나갔다.<sup>97)</sup>

독제는 출정의례의 하나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조선 전기 출정의례와 관련하여 성문화된 규정은 따로 없었지만, 장수를 출정시킬 때 부월을 하사하고 종묘에 祈告하는 의례를 시행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sup>98)</sup> 사실 성종대까지 출정할 때 독제를 지내야 한다는 의견은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 다만 1479년(성종 10) 명의 건주위 정벌에 원군을 파견하였을 때 요동의 명군이 출정하기 전에 독제를 지내는 것을 목격하였다.<sup>99)</sup>

조선에서 군의 출정과 독제에 관한 기록은 1555년(명종 10) 을묘왜변 때 처음 등장하였다. 당시 병조에서는 군을 출정할 때 으레 독제를 지내야 하는데, 급히 순찰사와 방어사를 파견하느라 미처 하지 못했으니 뒤늦게라도 독제를 거행할 것을 요청하였다.<sup>100)</sup> 이에 비변사에서는 이미 출정한 뒤에 독제를 지내는 일은 예에 합당하지 않고 또한 독제는 종묘·사직에 함께 제사하여야 한다고

95) 『정조실록』 권38, 정조 17년 11월 6일 을미.

9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 풍속.

97) 이창언, 앞의 논문, 267쪽.

98) 허대영, 앞의 논문, 70-74쪽.

99) 『성종실록』 권111, 성종 10년 11월 10일 신묘.

100) 『명종실록』 권18, 명종 10년 6월 9일 임신.

말하였다.<sup>101)</sup> 이후 1618년(광해군 10) 강홍립을 도원수로 하여 명에 원군을 출병시킬 때도 독제를 지냈다.<sup>102)</sup> 황섭이 작성한 ‘都體察使李元翼南下時蠶祭文’은 1595년(선조 28) 이원익이 도체찰사로 임명되어 출정할 때 독제를 지내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sup>103)</sup> 이와 같이 조선의 독제는 명의 마제와 유사하게 평상시에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기에 중앙과 지방의 독소에서 시행되었고, 유사시 군이 출정할 때 독제를 거행하였다.

한편 조선의 독은 의례적인 용도 외에도 군사지휘권을 상징하는 의물로서 정치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1461년(세조 7) 세조는 대마도주 소 시계요시[宗成職]를 대마주 병마도절제사에 제수하고 기독·금고·궁시·안마 등을 내려주었다.<sup>104)</sup> 마치 중국 수당 시기 북방의 유목민족 추장들에게 기미정책의 일환으로 독을 하사하였던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427년(세종 9) 제주도 찰방 김위민이 제주 지역에 토관의 수가 많으니 줄일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때 독소 10곳 등에 토관이 70명에 이른다고 하였다.<sup>105)</sup> 즉, 제주 지역의 토관들에게도 독을 내려준 것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창의하고 활동을 시작할 때도 독을 세우고, 독제를 지냈다. 이는 의병 조직의 정당성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의미였을 것이다. 김제민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하였는데, 그의 문집에는 의병활동을 시작하면 거행한 독제의 제문이 남아있다.<sup>106)</sup> 1592년 8월 강화에서 우성전을 의병장으로 창의하면서 독제를 지냈다.<sup>107)</sup> 반면 전란의 상황에서 발생한 반란군

101) 『명종실록』 권18, 명종 10년 6월 11일 갑술.

102) 『광해군일기』 권130, 광해 10년 7월 7일 계사.

103) 『식암집』 권4, 축문·제문 도체찰사이원익납하시독제문.

104) 『세조실록』 권25, 세조 7년 8월 28일 을미.

105) 『세종실록』 권36, 세종 9년 6월 10일 정묘.

106) 『오봉집』 권3, 제문 제독문.

107) 『임진일록』 임진년 8월 25일.

도 독을 세우기도 하였다. 1596년 충청도 홍산에서 승려와 속인 등 1천여 명이 독을 세우고 행군하여 홍산과 임천 등을 습격하였다.<sup>108)</sup>

이처럼 독을 세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군사 지휘를 상징하였으며, 이는 국가의 조직에 속한 군대일 수도 혹은 국가 조직에 반하는 반란군일 수도 있었다. 1625년(인조 3) 정운복의 역모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정운복은 정백수, 김개 등과 역모를 꾸몄으며, 김개의 집에 기독을 준비하였고 병사를 이끌고 한양을 치고자 하였다고 한다.<sup>109)</sup> 1629년(인조 7) 이충경 등이 사람들을 모아 독을 만들고 최영·남이 등의 영상을 그려 제를 지낸 뒤 역모를 꾀하였다.<sup>110)</sup> 이 두 역모 사건에서 그들이 만든 독이 국가의례에 사용되는 독과 같은 형태나 규모는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독을 마련하고 제를 올리는 행위가 반란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sup>111)</sup>

정리하자면 고려 말 독제와 마제의 제도가 정비되면서, 정기적으로 독제를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출정할 때는 이에 더하여 마제를 함께 시행하였다. 하지만 조선 건국 이후 의례 제도를 재정립하면서 독제와 마제의 제도 역시 새롭게 정비되었다. 그 과정에서 마제는 군사훈련의례인 강무를 출발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시행하는 의례가 되었고, 독제는 중앙과 지방의 정해진 장소[蠶所]에서

108) 『선조실록』 권77, 선조 29년 7월 9일 갑술.

109) 『승정원일기』 10책, 인조 3년 11월 20일 을축.

110) 『인조실록』 권20, 인조 7년 2월 27일 계축.

111) 정운복 사건의 경우 반란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정운복의 조카인 정사원이 여러 차례 신문하여 받아낸 것이나, 그 진위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독을 만든다는 행위가 반란 행위를 입증하는 근거로서 받아들여지는 당대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충분하다. 그리고 이충경 등은 다소 조작하게 독과 최영, 남이 등의 영상을 만들고 제를 올렸는데, 이에 참여한 자들은 장군제 혹은 독제라고 진술하였다. 두 사건의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오항녕 역주, 『추안급국안 9』, 전주: 흐름, 2014, 101-167쪽 ; 김우철 역주, 『추안급국안 11』, 전주: 흐름, 2014, 15-163쪽 참조.

매년 경칩과 상강에 제를 지내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군아대기에 대한 제사인 마제는 고려시대에는 출정 의례의 하나였지만, 조선에서는 강무할 때만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지면서 독제가 조선의 출정의례로 정착되었다. 이는 아마도 같은 시기 명에서 중앙과 지방에 기독교를 건립하고 정기적으로 마제를 올리고, 출정할 때도 마제를 올렸던 것과 관련하여 생각할 여지가 있다. 1491년(성종 22) 독소의 위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명의 사례를 확인하였는데, 이때 독제 혹은 마제라 표현하지 않고 ‘독에 제사하는 일(祭蠹)’, ‘독에 제사하는 장소(祭蠹之所)’라고 하였다.<sup>112)</sup> 즉, 명에서 기독교에 지내는 제사인 마제를 조선에서는 독제와 같은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의 독과 독제는 군사 전반에 대한 국가의례로서 위상을 가지면서도, 지방 군사지휘관의 지휘권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의병이나 반군을 거병할 때도 상징으로 활용되었다. 독·독제는 다양한 시점의 중국왕조와 유목민족의 여러 상징이 혼합된 역사적 산물로서 조선에 전해졌기 때문에 이처럼 다양한 면모로 조선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었다.

## 5. 맺음말

이상 군을 상징하는 의물인 독과 그에 대한 의례인 독제의 기원과 변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중국의 독은 본래 군기 형태의 의물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본래 수레를 끄는 말머리에 다는 장식으로 좌독이었는데, 후일 군기로서 독

112) 『성종실록』 권251, 성종 22년 3월 20일 병신.

과 관련한 기록이 서로 착종·융합되었다. 유목 사회에서 군주의 상징인 툽(tuy)은 독과 유사한 발음이기도 했지만, 군주를 상징하는 의물이자 ‘검은 짐승의 털’을 사용하여 만든다는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융합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유목 민족들이 그들의 제국을 건설하면서 민족정체성의 상징이자 군주의 상징인 툽을 휘하의 추장들에게 하사함으로써 권위를 부여하고, 국가를 조직화할 수 있었다. 당송대를 거치면서 중원의 국가들도 유목 제국의 방식을 차용하여 변방의 유목 부족 세력들을 통치하였는데, 여러 부족장에게 관직과 함께 기독을 하사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군기 형태의 독 혹은 툽의 상징적 의미가 중원 국가에도 공유될 수 있었을 것이다. 송대에 이르면 독에 대한 의례를 중국 고대의 출정 의례 중 하나인 마제와 연결하였고, 군사 관련 제례를 마제로 통합하였다. 이는 이후 중원 왕조에도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되었다.

조선에 전해진 독과 독제 그리고 마제는 중원 왕조의 예제와 유목 사회의 예제가 상호 교류한 결과라 말할 수 있다. 다양한 시점에 형성된 문화와 제도가 여말선초 시기 한반도에 전해지면서 독특한 하나의 문화적 지층을 형성한 것이다. 그 결과 근원적으로 유사한 의례라고 할 수 있는 마제와 독제는 조선 사회에서는 별개의 의례로서 동시에 국가 의례로 정립되었다. 이를 단지 조선의 무지 혹은 오해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동아시아 전반에 걸쳐서 독을 중심으로한 문화의 상호 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독에 대한 의례는 근본적으로 전쟁에서의 승리 혹은 안전을 기원하는 의례이다. 그러므로 독제의 대상은 군사 전반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근대 사회에서 이 軍事의 상징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민족의 시조, 조상신, 혹은 황제, 치우와 같이 구체적인 존재로 대체될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돌궐과 위구르는 민족의 시조로 상징되는 이리, 몽골의 칭기즈 칸, 중국 국가들은 대체로 황제나 치우를 제사의 대

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제사의 대상들은 현실에서 다시 한번 독·독·독 등으로 불리는 의물에 투영된다. 시간이 흐르면 시조, 조상신, 황제, 치우 등에 대한 숭배의식은 열어지고, 다만 군기에 대한 제사로서 군사에 대한 의례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다.

## 〈참고문헌〉

### 1. 사료

『國朝五禮儀』, 『國朝五禮序例』, 『唐六典』, 『明集禮』, 『宋史』, 『隋書』, 『承政院日記』, 『新唐書』, 『新元史』, 『輿地圖書』, 『五禮通考』, 『遼史』, 『朝鮮王朝實錄』, 『太白陰經』, 『太平御覽』, 『通典』, 『虎鈴經』

金齊閑, 『鰲峯集』

宋時烈, 『宋子大全』

任陞, 『水村集』

黃暹, 『息庵集』

### 2. 단행본 및 논문

김성수, “동부 유라시아의 元帥大旗: 독·톡(tuγ) 그리고 독·독(蠶)의 遺傳”, 『역사교육』144(2017):313-343,  
<http://doi.org/10.18622/kher.2017.12.144.313>

김성혜, “독제(蠶祭)의 음악사적 고찰”, 『음악과현실』38(2009):22-47,  
<http://uci.or.kr/G704-000046.2009..38.001>

김우철 역주, 『추안급국안 11』, 전주: 흐름, 2014

김위현 외 역, 『국역 요사』, 단국대학교출판부, 2012

김종수, “독제 재현을 위한 문헌 조사”, 『동방학』 12(2006):297-330,  
<http://uci.or.kr/I410-ECN-0102-2009-810-000368845>

석효정, “전통 만들기에서 시대성과 지역성 찾기: 통제영 독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22)

송지원, “조선시대 독제의(蠶祭儀) 악무(樂舞)”, 『문헌과해석』37(2006):122-141,  
<http://uci.or.kr/G901:A-0002323971>

- 심승구, “조선시대 독제의 변천과 의례”,  
『공연문화연구』제28집(2014):153-202,  
<http://doi.org/10.35150/korear.2014..28.004>
- 안지연, “중국 고대의 군례(軍禮)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23)
- 오항녕 역주, 『추안급국안 9』, 전주: 흐름, 2014
- 柳元秀, “오르도스 地域의 Sülde 猛威祭”,  
『비교민속학』6(1990):115-144
- 유원수 역주, 『몽골비사』, 파주: 사계절, 2004
- 이계지 지음, 나영남·조복현 옮김, 『정복 왕조의 출현: 요·금의  
역사』, 서울: 신서원, 2014
- 이창언, “경상좌수영성 의례의 지속과 변화: 독제(蠶祭)를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23(2014):249-275,  
<http://uci.or.kr/G704-002060.2014.23..005>
- 이-푸 투안 지음, 구동희, 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서울: 대운,  
1995
- 정재훈, 『위구르 유목제국사』,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4
- 정재훈, 『돌궐 유목제국사』, 파주: 사계절, 2016
- 허대영, “조선 전기 개전 및 종전 의례의 구조와 사례”,  
『한국문화』104(2023):61-88,  
<http://doi.org/10.22943/han.2023..104.003>
- 허순영, “『虎鈴經』 試論 및 校釋 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7)
- 郭红, “明代的旗纛之祭:中国古代军事性祭祀的高峰”,  
『民俗研究』05(2013):90-96,  
<http://doi.org/10.13370/j.cnki.fs.2013.05.006>
- 那木吉拉, ““雕戈蒙豹尾, 红旆插狼头”-古代突厥语族民族狼头纛考述”,  
『内蒙古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39-5(2010):33-36

- 庞政, “戰國秦漢時期的馬蠶及相關問題”, 『考古』11(2019):101-111
- 刘瑞, “左蠶位置的文献考索” 『文献』04(2000):238-240
- 王政, “柳宗元《祭蠶文》《禡牙文》与古之禡祭”,  
『淮北煤师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05(2002):52-53
- 郑德, “东北满族汉军旗香文化“禡祭”源流考论”,  
『长春大学学报』35-3(2025):40-47
- 陈晓伟, “传承与嬗变之间—关于北方游牧民族的“蠶””,  
『寻根』01(2009a):33-36
- 陳曉偉, “信仰·禮儀·權力·羈縻:契丹社會之蠶·旗與鼓研究”,  
『政大民族學報』28(2009b):73-100,  
[http://doi.org/ssl.openlink.aks.ac.kr:8080/10.30403/BDE.200906\\_\(28\).0004](http://doi.org/ssl.openlink.aks.ac.kr:8080/10.30403/BDE.200906_(28).0004)
- 陈晓伟·石艳军, “《契丹国志》一则史料刍议—兼论契丹之旗鼓”,  
『东北史地』02(2010):61-64,  
<http://doi.org/10.16435/j.cnki.cn22-1273/c.2010.02.012>
- 张德良·荆莉萍, “马蠶,抑或马旌?”,  
『辽宁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46.01(2023):126-132,  
<http://doi.org/10.16216/j.cnki.lsxwbk.202301126>

〈Abstract〉

## A study on the origin of duk and Rite of Duk that was transmitted the Chosŏn

Heo, Dae-Yeong

(AKS Scholar of Taehaksa,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Dukje(蠡祭) is a rite for duk(蠡), a flag symbolizing military authority. In Chosŏn, the dukje was held regularly in spring and fall, and also at the army was dispatched. However, flags symbolizing military authority and the ceremonies for them existed not only in Chosŏn but also in many countries in eastern Eurasia.

The Chinese Dok(蠡) was originally a decoration for the emperor's chariot. On the other hand, nomadic peoples made tuy as a symbol of national identity when they built an empire. By granting it to their subordinate chieftains and granting them authority, they were able to organize the empire. During the Sui and Tang periods, China tried to control them by borrowing the methods of the nomadic empires, which granted officials posts and flags to tribal chieftains. Through this, the symbolic meaning of duk or tuy was also shared in China.

Along with this, the origin of the dukje was traced back to Yellow Emperor or Chiyou, and the duk came to symbolize general military affairs. Eventually, during the Song Dynasty, the dukje was connected to the Maje(禡祭, rite of Ma), an ancient military ritual. And in the Ming Dynasty, the dukje as known as the maje. The

duk that were introduced to Chosŏn can be indicators and results of the exchange between the China and nomadic states.

Keywords : duk, Rite for Duk, Rite of Ma, Military Ritual, gun-adaeki(general's banner)

원고투고일 : 2025. 7. 8. 심사완료일 : 2025. 8. 22. 게재확정일 : 2025. 9. 8.